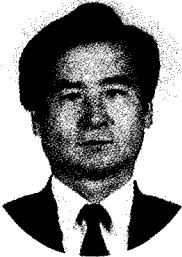




조경수의 병해충

- 벼룩바구미류 -



이 범 영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벼룩바구미 종류는 분류학적으로 딱정벌레목 바구미과의 벼룩바구미아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우리나라에 10종이 기록되어 있다. 이 곤충의 피해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느티나무벼룩바구미의 피해가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들어 전국적으로 심한 피해를 주기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떡갈나무벼룩바구미가 90년대 중반에 충북, 전북지방에 나타난 후 계속 그 분포지역을 넓혀가며 피해를 주고 있다.

1. 느티나무벼룩바구미 (*Rhynchaenus sanguinipes*)

느티나무만을 가해하며 성충과 유충이 잎살(葉肉)을 식해한다. 성충은 주둥이로 잎표면에 구멍을 뚫고 흡즙하고 유충



■ 느티나무 벼룩바구미 피해잎



■ 느티나무 벼룩바구미

은 잎의 가장자리를 갇아 먹는다. 피해를 받은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5~6월에 피해받은 잎이 갈색으로 변해 경관을 해친다.

성충의 몸길이는 2~3mm이며 황적갈색이고 뒷다리가 잘 발달되어 있어 벼룩이처럼 잘 뛰며 나뭇잎에 작은 충격이라도 가해지면 땅으로 떨어지는 습

성이 있어 가해하고 있는 성충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1년에 1회 발생하며 수피에서 월동한 성충은 느티나무 잎이 피기 시작하는 4월 중순~5월초순에 출현하여 잎살을 가해하며 잎에 1~2개씩 산란한다. 부화한 유충은 5월초순~5월하순에 잎속으로 잠입하여 성장을 계속하며 유충이 성장

하는 일부는 갈색으로 변하여 피해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5월하순경 노숙한 유충은 잎살에 긴 타원형의 용실을 만들고 번데기가 된다. 새 성충은 잎표면에 구멍을 만들고 7월초순경부터 탈출하여 잎을 가해한다.

방제는 피해초기에 메프유제, 파프유제, 디디브이피유제 등을 잎에 살포한다.

2. 떡갈나무벼룩바구미

(*Rhynchaenus japonicus*)

참나무류와 밤나무를 가해하나 특히 졸참나무와 상수리나무에 피해가 심하다. 성충과 유충이 잎을 가해하여 여름에 잎이 변색되어 낙엽된다. 피해를 받은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으나 5~6월에 피해잎이 갈색으로 변해 신록을 잃는다.

몸길이는 4mm정도이고 몸이 검은 색이나 윗날개는 갈색이고 배는 적갈색이다. 다리와 날개끝은 황갈색을 띠며 등에는 회황색의 작은 털이 밀생되어 있다.

느티나무벼룩바구미와 생활사가 비슷하다. 월동성충이 봄에 출현하여 잎을 식해하고 5월에 유충이 발견되며 피해가 심한 임지는 5~6월에 잎이 심하게 변색되어 미관을 해친다.

방제는 느티나무벼룩바구미 방제법과 같다.



■ 떡갈나무 벼룩바구미



■ 떡갈나무 벼룩바구미 피해잎